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8. 9.(화) 14:00
담당 부서 <총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이기채 (044-200-5616)

서해 일부 및 남해 연안, 고수온 특보 확대 발령

- 현장대응반 운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어장별 총력 대응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남해 해역의 수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8월 9일(화) 14시부터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에 내려져 있던 고수온 주의보를 고수온 경보로 상향발령하고, 전남 자은도부터 부산 다대포까지의 해역(진도 냉수대 해역은 제외)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번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 그리고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서해 일부 및 남해 연안의 수온은 8월 8일(월) 13시 기준, 27.9℃에서 28.8℃ 정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수온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관심/주의) 수온 28℃ 도달 예측 1주일 전 → (주의보/경계) 수온 28℃ 도달 → (경보/심각) 수온 28℃ 이상 3일 지속

** 주요 연안 수온(8.8일 13시): 서산(28.4℃), 완도(27.7℃), 통영(27.4℃), 제주(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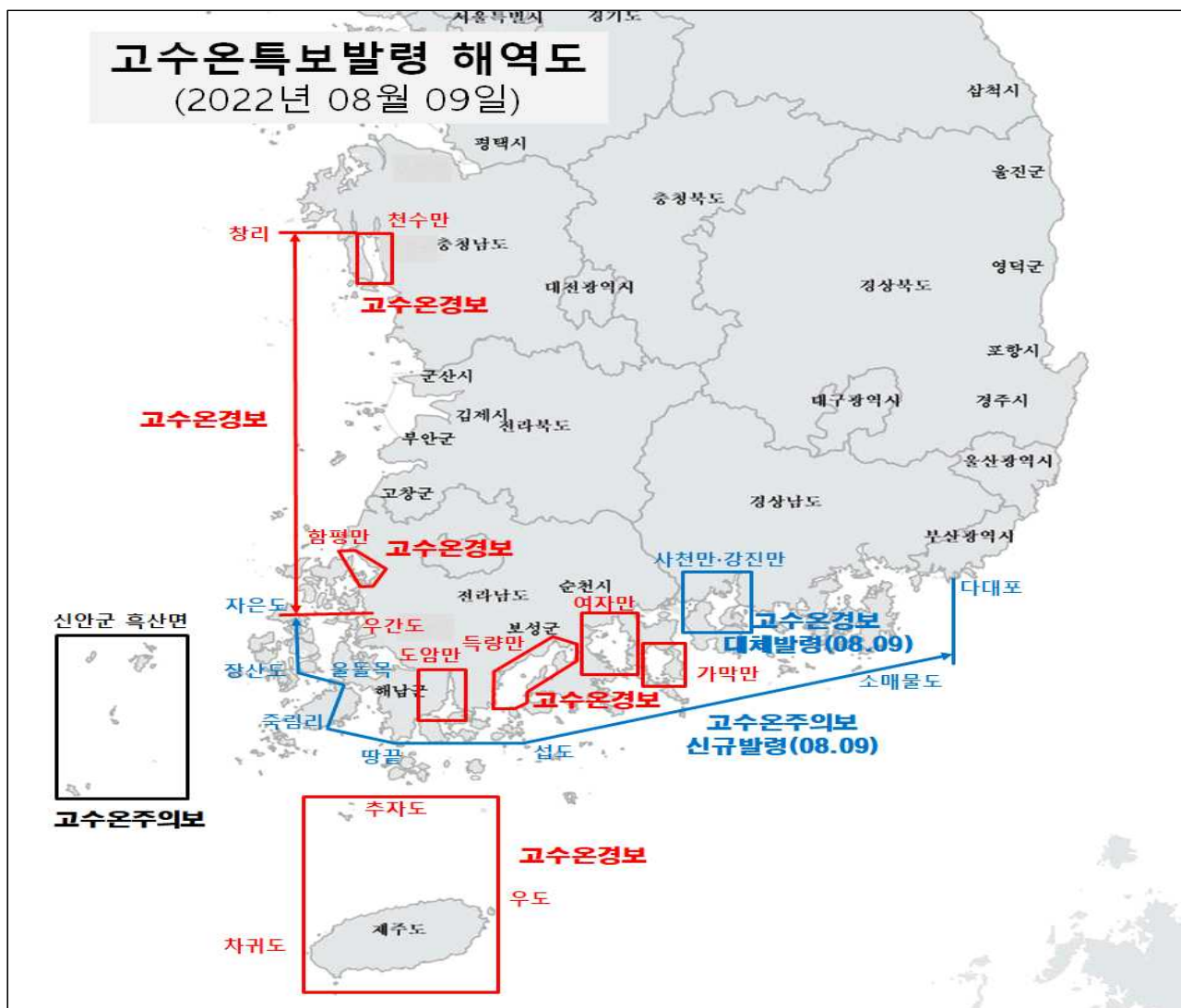
고수온 시기에는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동·선별 작업 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이용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등 단계별 어장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회지도와 밀착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7월 6일 함평만 등 남해연안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고수온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어업인

들께서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과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044-200-5614)
			사무관 이기채 (044-200-5616)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정래홍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한인성 (051-720-2230)
			연구사 이준수 (051-720-2231)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책임자	과 장 황형규 (051-720-2410)
		담당자	연구관 남보혜 (051-720-2420)
			연구사 최 진 (051-720-2431)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



고수온 특보 현황

일 자	특 보 내 용	비 고
‘22.07.04	○ (관심) 전연안	
‘22.07.06	○ (주의보) 전남(함평·도암·득량·여자·가막만 / 경남(사천,강진만)	
‘22.07.08	○ (주의보) 충남(천수만) / 서해연안/ 제주해역 ○ (경보) 전남(함평·도암·득량·여자·가막만)	
‘22.08.03	○ (주의보) 전남 흑산면 ○ (경보) 제주해역, 천수만	
‘22.08.06	○ (경보) 서해연안	
‘22.08.09	○ (주의보) 서해일부 및 남해연안(진도 냉수대 해역 제외) ○ (경보) 경남(사천,강진만)	